

제주도 해안지역의 경관적 특성

정 광 중 (제주교대 교수)

<목 차>

- | | |
|-------------------|---------------|
| 1. 서론 | 1) 교육적 측면의 기능 |
| 2. 해안지역의 특성과 경관요소 | 2) 관광적 측면의 기능 |
| 3. 경관요소별 특성과 해석 | 5. 결론 |
| 4. 경관요소별 기능 | Summary |

1. 서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따른 지리학 분야의 지역연구나 경관연구는 한 차원 다른 공헌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근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인식시키려는 노력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면, 앞으로 지리학 분야의 연구성과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새롭게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형태로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배경을 저변에 깔고,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경관적 시점에서 새롭게 조직하고 평가함으로써, 제주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내 요소 요소에 해안도로가 건설됨으로써 해안지역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교육

적·관광적 효과와 역할이 기대되는 경관구성요소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며, 논의하는 순서도 일정한 틀을 배경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점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는 경관구성요소(이하, 경관요소로 약술)를 일정지역 내에서 선택하여 취급하기로 한다. 나아가, 본 고에서 다루어지는 경관요소라 함은 구체적으로 일정지역 내에 위치하는 가시적인 지리적 현상(藤岡謙二郎, 1977)에 한정시켰음을 밝혀둔다.

2. 해안지역의 특성과 경관요소

본 연구에서는 경관요소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그 요소들이 전개되는 지역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안지역의 범위를 설정해 두기로 한다. 본 고에서 다루는 해안지역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해안지역의 틀을 벗어나(제주도, 1997), 해안에 인접한 주요도로 즉 최근에 새로 개설된 해안도로나 기존의 일주도로(해안도로가 없는 지역)를 기준으로 하여 해안(바닷가)으로 연

결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그림 1).

다음으로, 이상의 기준에서 설정한 제주도의 해안지역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서술해 보기로 한다. 제주도 해안지역의 특성은 먼저 지형적 요소에 의한 자연적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용암에 의한 지형형성이다. 즉, 점성이 낮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 해안부근까지 흘러들어 기복이 다소 급한 곳에서는 용암이 두꺼운 층으로 뒤덮혀 단애를 이루어, 이를테면 제주 방언인 '엉'(남떠러지 비슷이 된 암석을 의미, 제주도, 1995, p.69) 혹은 '기정'(절벽을 의미, 제주도, 1995, p.410) 등으로 대표되듯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미지형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 용암이 탁월한 남부해안의 경우에는 좁은 지역내에 두꺼운 층을 이루어 분포하는 특성때문에 폭포나 단애를 형성하는 곳도 있다. 보편적으로, 이들 단애 혹은 해식애의 배후에는 오름(기생화산)들이 위치하기도 하고, 넓은 들(농경지 포함)이나 잔디밭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리고 비교적 기복이 낮은 곳에는 해안의 정선부근까지 용암이 흘러들어 용암위에 사빈이 퇴적되어 있거나, 용암부분이 파식되어 암석해안의 원초적 경관을 이루는 곳도 많다.

김태호(1997)에 의하면, 제주도의 해안선은 총 306km로서 이중 암석해안의 길이는 총 227.9km로 전체해안의 75%를 차지하며, 사질해안은 21.9km로 전체해안의 7.1%(이외에 인공해안이 존재함)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할 때, 제주도의 해안은 전체적으로 암석해안이 배경을 이루는 경관적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질해안의 경관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여름철의 해수욕 및 산책 등 이용면에서는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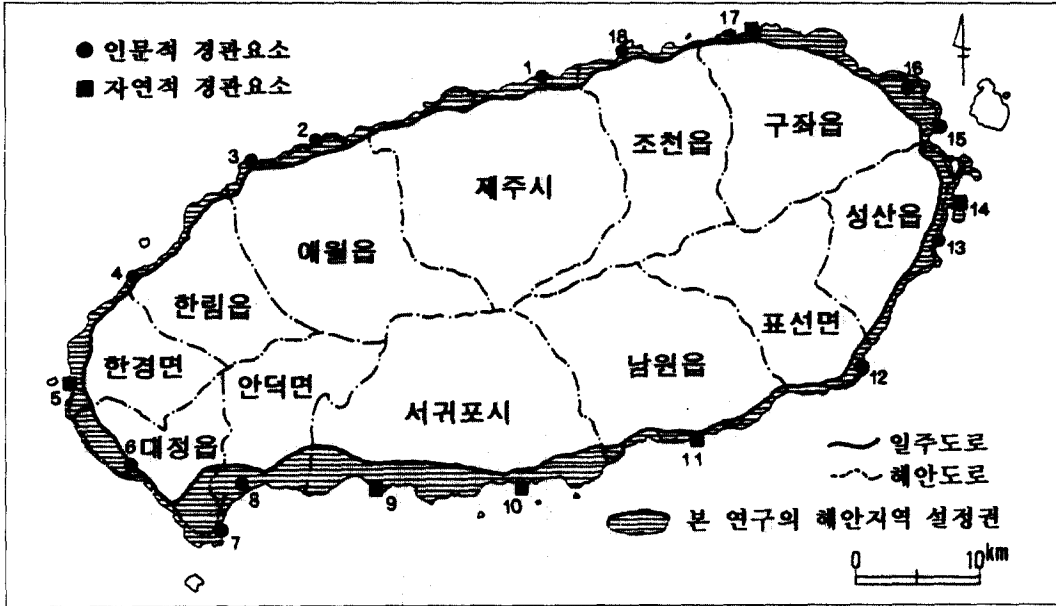
인공해안은 인근의 어촌을 끼고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안과 취락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면적인 공간으로서의 경관적 특성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주로 용암지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도내에 분포하는 자연적 경관요소들을 교육적 및 관광자원적인 측면에서 열거해보면 폭포, 해식동, 용암동굴, 계곡, 하천, 주상절리군, 퇴적지층, 파식대, 시스텍, 사빈, 오름(기생화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해안지역에는 전술한 지형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문적 경관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관적 특성을 자아내는 곳이 많다.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동서부 지역과 남부지역의 여러 해안지역에는 이미 해안도로가 건설됨으로써, 해안지역의 경관에 한층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이와같은 해안도로의 건설이 뒤따르지 않았다더라면, 제주도내의 해안지역의 경관은 의미없이 사장되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안도로의 건설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도내의 곳곳에 설치된 위락 및 관광체험장소이다. 이들은 토지나 공유수면의 새로운 이용패턴을 구사하는 본보기로서, 도내의 도시관광지의 틀을 벗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안지역의 적재적소에 분포하는 인문적(문화적) 경관요소들을 열거해 보면, 성곽(별방진성, 화북진성, 조천진성 등), 연대(서림연



〈그림 1〉 해안지역의 설정권역과 경관요소의 분포(필자 원도)

대, 수근연대, 남두연대, 섭지연대 등), 봉수대(사라봉수, 별도봉수, 지미봉수, 등), 방사용탑(몰래물 마을 1, 2호, 용수마을 1, 2호 등), 사당, 패총, 고인돌, 도요지, 비석, 기타 유적지(연복정, 포제단, 옛 등대, 인공굴)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형성된 시기는 늦은 편이나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던 염전터도 과거의 유산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인문적 경관요소로서 각광받을 만 하다.

3. 경관요소별 특성과 해석

본 장에서는 제주도 해안지역의 경관요소를 지역별로 선택한 후, 정점촬영한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경관적 특성을 설명하고 해석하기로 한다. 여기에 제시한 사진자료는 전술한 해안지역내의 경관요소별 특성을 균형

있게 살펴보기 위해 최대한으로 중복성을 고려하여 선택된 것들이며, 크게 인문적 경관요소와 자연적 경관요소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편의상 경관요소의 지역적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주시를 기점으로 서부 → 남부 → 동부지역의 순서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인문적 경관요소

(1) 해신사(海神祠)

[제주시 화북동 / 사진 1 / 지도번호 1]

해신사는 순조 20(1820)년에 당시 제주목 사였던 한상목이 세운 것으로서, 건립목적은 해상활동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에는 화북포구가 관리들의 입·출도의 관문인 동시에, 제주목(濟州牧)의 중요한 포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당의 규모는 전면 1칸, 면적은 9.45㎡이며 높이(지면-처마간)는 2.35m로, 건물안에는 제단(가로 97cm ×

세로 61cm)과 함께 '해신지위(海神之位)'라고 쓰인 비(높이 24cm, 너비 16cm)가 있다(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2) 염전터(鹽田址)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 사진 2 / 지도 번호 2]

구엄리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걸쳐 1950년대 초까지 소금을 생산하던 마을이다. 특히 이 마을의 소금은 파식대의 암반위에서 태양열만을 활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히 들소금이라고 일컬어졌다. 제염농어가당 면적은 대략 20-30평 정도였다(정광중·강만익, 1997).

(3) 옛 등대(舊 燈臺)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 사진 3 / 지도 번호 3]

애월리 포구의 한쪽 모퉁이에는 일제 강점기(1930-1935년 사이)에 세워진 옛 등대가 머리부분이 파괴된 채 남아있다(이덕희, 1997). 등대의 규격을 보면, 높이 246cm, 밑둘레 142cm, 윗둘레 116cm이며(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재료는 현무암과 시멘트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도내의 옛 등대는 모두 18개소로 보고되고 있다.

(4) 풍력발전(風力發電)

[북제주군 한림읍 월령리 / 사진 4 / 지도 번호 4]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림읍 월령리에서 풍력발전을 가동시키고 있다. 월령리의 시범단지에는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소 소속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1998년 4월 17일, 신·채

생 에너지 시범단지와의 전화 인터뷰, 제주도교육청, 1995), 1995년 2월부터 100kW급 1기(덴마크 산), 30kW급(독일산) 2기 및 20kW급 1기(한국산, KIST 개발품)를 가동시켜 시범적으로 전력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5) 서림연대(西林烟臺)

[남제주군 대정읍 일파리 / 사진 6 / 지도 번호 6]

연대는 고려시대 말부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제주도내의 해안가를 따라 설치했던 방어시설의 한 형태이다. 서림연대는 당시 대정현에 속하던 연대의 하나로서 동쪽으로는 무수연대(대정읍 상모리 / 모슬진 소속)와 응수하고 서쪽으로는 우두연대(한경면 용수리 / 차귀진 소속)와 응수하여 연락을 취하며, 별장 6명과 직군 12명을 두고 있었다(김상욱, 1997). 도내에 설치했던 연대는 총 38개소이며 봉수대는 25개소이다.

(6) 송악산 해안가 일대 인공 터널(人工窟)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 사진 7 / 지도 번호 7]

송악산을 배경하여 일대의 해안가에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15여 개의 인공터널들이 산재해 있다. 이것은 다름아닌 일제가 남지나해로부터 연합군이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하여 만든 해군진지의 흔적들이다. 1920-1930년대에 주로 곡괭이와 삽 등의 도구만으로 인공터널을 만들었는데, 주로 어뢰정(속칭, 다이아다리선)을 숨겨놓는 장소로 이용하였다(공군 제8546부대, 1996). 터널의 폭은 약 3-4m, 길이는 20여m(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6)에 이른다.

(7) 화순패총(和順貝塚)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 사진 8 / 지도번호 8]

화순리와 사계리를 잇는 해안도로변의 이 패총은 사구층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소라, 전복, 굴, 조개(대합)류 등이 섞여 있다. 사구층의 길이는 대략 100m이며 높이는 약 1-5m 정도로 곳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유물 포함 층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구층 내에서도 띠(帶)와 같은 상태(20cm 미만,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6)로 형성되어 있다.

(8) 제주 민속촌(濟州 民俗村)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 사진 12 / 지도번호 12]

제주시내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제주민속촌은 과거 제주도의 서민 생활사와 전통양식을 그대로 살려 1987년에 개장한 야외박물관이다. 약 16만㎡의 면적에 100여 채의 전통가옥들을 어촌, 산촌, 중산간촌, 무속 신앙촌 등으로 구분하여 복원해 놓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전통가옥들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서민들의 전통적인 생활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환해장성(環海長成)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 사진 13 / 지도번호 13]

환해장성은 제주도의 해안가를 따라 길게 둘러져 있는 성을 말하며, 축성 기원은 고려 원종 11(1270)년에 삼별초와 대항하기 위해 김수(당시 영암부사)와 고여립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삼별초 진압과 더불어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중축과 개축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온평리 부근 외에도 고내리, 북촌리 등에도 성의 일부가 남아 있다.

(10) 해녀 탈의장(海女 脫衣場)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 사진 15 / 지도번호 15]

해녀 탈의장을 제주도내에서는 보통 '불턱'(불을 피우는 곳이라는 의미)이라고 한다. 이곳은 해녀들이 바다작업(제주 방언으로는 '물질'이라 함)의 시작과 끝맺음을 하는 곳이며, 제주여성들이 삶을 엮어내는 삶터이기도 하다(제민일보, 1997년 5월 1일자, 11면). 명칭은 해녀 탈의장이라 했지만, 이곳에서는 결코 옷만 갈아입는 곳이 아니다. 휴식처인 동시에 생활정보의 교환장소로서, 또한 마을 일을 의논하는 공동체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11) 별방진성(別防鎭城)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 사진 16 / 지도번호 16]

별방진성은 제주목의 1읍성 5진성 가운데 하나로 하도리에 위치하며, 둘레가 약 960m 정도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었다(제주도, 1996). 현재는 서쪽과 남쪽의 일부 성벽과 웅성만이 남아 있을 뿐, 그 외 문루나 성벽 및 웅성 등은 파손되어 남아있지 않다. 별방진성 안에는 진사, 객사, 공수, 사령방, 무기고 등의 건물이 있었다.

(12) 연북정(戀北亭)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 사진 18 / 지도

번호 18]

지방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연복정은 제주에 내려온 사신(관리)들이 나들이 할 때 잠시 쉬거나 복년의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내던 장소이다. 연복정의 역사는 선조 23 (1590)년에 당시 목사인 이육이 조천관을 증건하고 쌍벽정(雙壁亭)이라 이름지었던 데서 비롯되며, 그 후 선조 32(1599)년에 성윤문 목사가 건물을 증수하고 연복정이라고치게 되었다. 이 후에도 연복정은 수 차례의 증축과 개축을 거쳐 높이가 14척의 축대위에 좌향을 동남향으로 하고 포구와 접하게 하였으며, 건물 북쪽으로는 타원형의 성곽을 쌓았다(한라일보, 1990년 7월 18일자, 5면).

2) 자연적 경관요소

(1) 화산 쇄설층(火山 碎屑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 사진 5 / 지도번호 5]

흔히 '고산층'이라 일컬어지는 이 화산지층은 제주도의 화산활동에 대한 역사적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화산쇄설성 퇴적층이다. 이 화산쇄설층에서는 화산재, 스크리아, 화산탄 등 각종 화산퇴적물을 비롯하여 충리구조, 탄낭(bomb sag)구조 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주상절리군(柱狀節理群)

[서귀포시 대포동 / 사진 9 / 지도번호 9]

학문적으로 주상절리는 암괴나 지층에 있어서 기둥모양의 선(線)이 지표(냉각면)에 대해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권혁재, 1974). 이는 특히 용암이 분출되어 굳

어진 화산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6각형 모양의 주상절리는 현무암이나 조면암이 두껍게 덮여 있는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정방폭포, 천지연 및 천제연 폭포는 바로 이러한 현상과 깊게 관련된다.

(3) 외돌개(-)

[서귀포시 서홍동 / 사진 10 / 지도번호 10]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외돌개는 시스템(sea stack)의 일종이다. 시스템은 암석해안에서 기반암이 육지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바위섬을 말하는데, 암석해안의 헤드랜드가 파도에 침식당하면서 남은 일부분이다(자연지리학사전편찬위원회, 1996). 외돌개는 높이가 약 20m, 폭 10m의 규모를 가지며, 외형은 굴뚝모양을 취하고 있다(장상섭, 1989).

(4) 남원리 큰 영(南元里 -)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 사진 11 / 지도번호 11]

큰영은 직역하면 '큰 절벽'이란 뜻이 되며, 지형학적으로는 일종의 해식애이다. 해식애는 기본적으로 파식을 받아 육지부가 후퇴할 때 형성된다(권혁재, 1983). 남원리의 큰영 부근에는 원래 두꺼운 용암층이 해안가까지 덮혀 있었으나, 파식을 받으면서 연암층 용암이 먼저 파괴되고, 경암층 용암은 기괴한 형상을 이루며 남게 된 것이다.

(5) 신양리층(新陽里層)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 사진 14 / 지도번호 14]

〈사진 1〉 해신사

〈사진 2〉 염전터

〈사진 3〉 옛 등대

〈사진 4〉 풍력 발전

〈사진 5〉 화산 쇠설층

〈사진 6〉 서림 연대

〈사진 7〉 안공 터널

〈사진 8〉 화순 폐총

〈사진 9〉 주상절리군

〈사진 10〉 외돌개

〈사진 11〉 큰 영

〈사진 12〉 제주민속촌

〈사진 13〉 환해장성

〈사진 14〉 신앙리총

〈사진 15〉 해녀 탈의장

〈사진 16〉 별방진성

〈사진 17〉 김녕해수욕장

〈사진 18〉 연북정

신양리층은 서귀포층과 함께 제주도의 화산활동이나 퇴적층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주도의 형성과정을 연대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층이다. 신양리층은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 사이의 해안(신양리 해수욕장 주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기저현무암이라 일컬어지는 표선리현무암의 상부를 뒤덮고 있다. 신양리층의 형성시기는 약 12만 5,000년전의 마지막 간빙기로 해석되고 있으며(제주도 화산지질에 대한 심포지움, 1993, 장소 : 제주교대), 굵은 모래와 가는 자갈 등이 서로 호층을 이루고 있다. 이 퇴적층은 해수면에서 4m 이상의 지표면까지 발달되어 있다.

(6) 김녕 해수욕장(金寧 海水浴場)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 사진 17 / 지도 번호 17]

김녕해수욕장은 길이가 약 500m, 폭이 70-80m 정도이며 1978년에 개장하였다(국제관광공사, 1981). 사질은 백색 패사이다. 그런데 북서풍이 탁월한 관계로, 비사(飛砂)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여름철의 해수욕 시기가 지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사 방지용 그물을 덮어두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물은 일반 농작업에 사용하는 비닐성 그물이다. 따라서 강풍이 부는 날이면 그물위로 모래가 주변 도로나 주차장 쪽으로 비산되어 쌓이고 있다.

4. 경관요소별 기능

앞장에서 거론한 경관요소를 두 가지 측면의 기능, 즉 교육적 측면의 기능과 관광적

측면의 기능에서 서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제주도 해안지역 내에 분포하는 경관적 특성과 역할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교육적 측면의 기능

제주도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개별적인 경관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흡인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교육적·교양적 성격의 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인 만큼, 어느 한 지역내에 존재하는 경관구성의 일부요소가 바로 지식과 정보의 근원을 캐내는데 필요한 기본적 자료임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초·중등과정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생활적 사고는 높게 나타난다. 이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졌다는 내면적 측면이 크게 작용된 것은 틀림없지만, 한 단계 더 접근해 보면 그들의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교육적 소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경관요소와 교육적 기능의 상호관계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적 사고의 향상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시켜 나가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교육과정상에서 다양한 교육적 소재나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시켜, 앞 장에서 거론한 제주도 해안지역의 경관요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큰 틀에

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인문적 경관요소에서는 제주도에 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제주도민들의 생활환경 및 행동양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점은 한 개의 경관요소로부터 터득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여러 개의 경관요소들로부터 관련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개별적 경관요소가 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각 경관요소들이 점유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당시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로 자연적 경관요소로부터는 전체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생활터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자연환경에 대해 인식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과 불필요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경관요소를 통하여 열악한 자연환경이나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고, 삶의 운택을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들(혹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활터전과 비교함으로써 일정지역의 지역성이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두 가지 형태의 경관요소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의 자연환경과 인간행위와의 관계 즉, 제주도민들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제주도민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경관요소들이 왜 해안지역에 존재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

이 어떠한 지형적 특징을 갖는 장소에 나타나며, 그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 해안지역에 산재하는 경관요소를 통해 현대시점에서 과거시점을 조명해 봄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사실의 내재성과 도민들의 생활양식, 자연환경의 보편성과 특수성, 더 나아가서는 지혜롭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할 수가 있다. 결국, 이것은 일정지역에 분포하는 경관요소가 바로 지식과 정보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관광적 측면의 기능

제주도 해안지역의 경관요소가 관광적 측면에서 발휘하는 기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관요소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개의 경관요소가 또는 지역적 연계차원에서 볼 때, 어떤 특성의 관광적 기능을 갖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지명도를 가지며, 어느 정도의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라는 점일 것이다.

인문적 경관요소는 일반적으로 역사적·문화적 체험의 관광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관요소들은 제주지역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문화의 한 단면을 체험할 수 있는 대개체적 역할을 담당한다. 위에서 거론된 12개의 인문적 경관요소에는 물론 현대시점에서 문화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제주민속촌, 풍력발전 사업단지, 해녀탈의장)도 포함되어 있다.

지명도나 관광객의 흡인력에 있어서는 인문적 경관요소보다도 오히려 자연적 경관요소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관광행위가 끝난 후에 피부로 느끼는 정도나 뇌리속에 상이 맺히는 정도가 훨씬 강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보다는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스럽고 오묘한 창조물에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자연적 경관요소 중에서도 지명도나 관광객의 흡인력에서 비교적 낮은 것은 신양리의 퇴적층과 고산리의 화산쇄설층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들 경관요소는 그 동안 관광자원적 요소로 부각시키는데 소홀하였거나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의 형태적 특징 및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무리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적 요소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들 퇴적층에서 많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거나, 또는 외부형태가 기괴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본고에서 설정한 해안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문적 경관요소의 지명도 및 관광객의 흡인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12개의 경관요소들 중에서도 '제주민속촌'과 '송악산 일대의 인공터널'을 제외하면 지명도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결국, 이 문제는 중앙이나 반도부의 타 지역에 비교하여 제주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적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앞서 지적한 두 가지 경관요소의 경우는 관광자원

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변지역과의 연계면에서도 효과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지명도나 관광객의 흡인력은 상당히 높다. 결과적으로, 인문적 경관요소의 경우는 수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다양한 편이지만, 경관요소들 하나 하나가 단독으로 존재해서는 의도적인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경관요소로서는 관광자원적 가치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의적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있도록 주변의 타 경관요소와의 연계성이나 개별적 경관요소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의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인문적, 자연적 경관요소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1) 제주도의 해안도로와 일주도로를 기점으로 하는 해안지역에는 다양한 인문적, 자연적 경관요소가 위치하며, 이들은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더불어 교육적, 교양적, 관광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 이미지의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2) 해안지역의 인문적 경관요소는 특히 교육적·교양적 기능이 뛰어나며, 이들은 제주지역민들에게 생활경제적, 종교적, 방어적 성격을 지니던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들 인문적 경관요소의 형성시기는 선사시대에서부터 고려 및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최근 것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된다.

3) 자연적 경관요소는 기본적으로 화산(용암)지형과 관련되는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2차적으로는 해안의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의 결과 형성된 것으로 대별된다. 이들은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관광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많으나, 형성시기는 지형형성의 메카니즘과 깊게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히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다.

4) 본 고에서 거론된 해안지역의 경관요소에 한정시켰을 때, 인문적 경관요소와 자연적 경관요소는 제주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면 개별적인 경관요소로서의 존재 가치는 크지만, 이에 편승하여 교육적 측면의 학습대상이나 관광적 측면의 자원으로서의 개별적인 가치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습효과나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단위의 연계적 프로그램(지구별 관광)이나 유사한 경관요소의 그룹화(테마관광)를 통한 홍보활동이 절실하다. 홍보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의 예를 소개하면, 전자의 경우는 '구좌-성산 지역의 문화유적 탐방' 혹은 '대정-서귀포 지역의 해안 유적지 탐방'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는 '연대 및 봉수대 견학'이나 '신비로운 제주 퇴적층의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예상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권혁재, 1983, 자연지리학, 법문사.
 권혁재, 1974, 지형학(제3판), 법문사.
 공군제8546부대, 1996, 이룬디 알암수과(제주도 전사적지 탐방기), 공군제8546부대.

국제관광공사, 1981, 전국해수욕장실태조사, 국제관광공사.
 김상욱, 1997,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 38-79(강창용 외,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김태호, 1997,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제18호, 381-397.
 이덕희, 1997, 제주의 도대불, 도서출판 가시아히.
 장상섭, 1989, 제주도 SEA-STACK의 지형학적 연구, 동국지리, 제10호, pp. 1-23.
 자연지리학회사전편찬위원회, 1996, 자연지리학사전, 한울.
 제주도 문화예술과, 1996,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제주도, 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제주도 화산지질에 대한 심포지움 자료, 1993.
 제주도교육청, 1995, 우리고장 현장학습 프로그램, 제주도교육청.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남제주군.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 북제주군.
 정광중·강만익, 1997, 제주도 연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탐라문화, 제18호, 351-379.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2, 제주시의 옛터, 제주시.
 藤岡謙二郎, 1977, 地理學と歴史的景観, 大明堂(日本:東京).
 제민일보, 1997년 5월 1일자, 11면.
 한라일보, 1990년 7월 18일자, 5면.

<Summary>

The Study on the Landscape of Coastal Areas in Cheju Island

Kwang Joong Jeo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landscape features of coastal areas in cheju Island. The examination of photographs reveals a lot of distinctive elements of Cheju coastal landscape.

The research has found eighteen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landscape; 12 for human elements and 6 for physical on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1) A shrine-'Haeshinsa'(Hwabuk-dong)
- 2) Place of the 'Dol(rock)' salt(Kuöm-ri)
- 3) Lighthouse(Aewol-ri)
- 4) Wind-power generation(Wollyöng-ri)
- 5) Smoke-signal station-'Yöndaek'(Ilgwa-ri)
- 6) Artificial tunnel(Sangmo-ri)
- 7) Shell mound(Hwasun-ri)
- 8) Cheju folklore museum(Pyosön-ri)
- 9) Site of coastal fortress(Onpyöng-i)
- 10) Femail diver's lockerroom(Chongdal-ri)
- 11) The Site of 'Pyölbang' fortress(Hado-ri)
- 12) A pavillion-'Yönbukchöng'(Chochon-ri)
- 13) Layer of pyroclastic materials(Kosan-ri)
- 14) Daepo-dong columnar joint(Daepo-dong)
- 15) Sea stack-'Oedolgae'(Sögwí-dong)
- 16) Sea cliff-'Kün öng'(Namwon-ri)
- 17) Shinyang-ri fomation(Shinyang-ri)
- 18) Kimnyöng beach(Kimnyöng-ri)

*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